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11, 느헤미야 11-13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1회기, 느헤미야 11-13장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연구가 끝나고 11장, 12장, 13장을
다루겠습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다시 사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11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물리적, 인간적, 정부적 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11 장의 처음 두 절.

1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백성은 제비를
뽑아 열에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열에 아홉은 다른 성읍에 남게
하였 느니라. **2** 그리고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들은 농작물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살 수 있는 바깥 마을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그 도시에 살 것인지 제비를 뽑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제비를 뽑는 것이 신의 뜻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도시는 얼마나 컸습니까? 야마우치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인구가 6,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은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사는 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 11장에는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10-14절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5-18절에는 레위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절에는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성전 종들이 있습니다. 22절에는 레위인의 감독자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누가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25-36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장과 11장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30,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성서는 유다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힌놈 골짜기까지의 경로에 대해 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은 성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아홉 구절에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서 제사장들의 목록을 계속합니다.

이제 이 목록은 기원전 538년부터 약 400년까지 약 100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목록은 여호수아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아킴, 엘리아십, 요나단까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자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대제사장을 여호수아에서 요나단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약 100년.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여기에 포함된 레위인들이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목록은 포괄적이거나 완전한 목록이 아닙니다. 27장에 이르면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제금과 수금과 수금을 타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봉헌식을 행하려고 하였더니 **28**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이 예루살렘 사방과 느도바 족속의 마을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29** 또 벤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지방에서도 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건축하였음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스스로 정결케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성벽이 재건된 때부터 성벽이 봉헌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예배를 계획할 때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글썄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주변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큰 축하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 그들을 축하하고 초대해야 했습니다. 축하의 일부도 정화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1절,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데리고 성에 올라가서 큰 합창단을 세우고 감사하게 하였느니라.

합창단은 특이한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예배를 위해 합창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개가 생겼으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남쪽 성벽을 따라 똥문으로 갔는데 그 뒤에 몇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샘문으로 가서 다윗 성 층계와 다윗의 집 위로 올라가는 성벽을 지나서 그들 앞으로 곧장 올라가서 동쪽 수문에 이르렀더라. 그럼, 두 개의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하나는 뚝문을 향해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있었습니다(31절). 트럼펫 연주자가 있었습니다(35절).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36절).

그리고 그 행렬은 에스라가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와 예레미야는 둘 다 동시대인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다른 합창단이 나옵니다. 감사를 드리는 다른 합창단도 북쪽으로 가서 나머지 절반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는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기쁨으로 기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43절 끝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예루살렘의 기쁨이 멀리 들리더라.”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파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기쁨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건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시작하면 느헤미야의 성벽 그림이 나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구성한 부분이지만 원본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이 돌들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 벽이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이 약 8피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위치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40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벽은 다시 한번 고고학자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성전 봉사에 바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날에 사람들을 세워 창고와 헌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십일조를 맡아서 그 성읍의 밭을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이 정한 몫으로 모으게 하였더라.

레위인들은 땅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성전에 바쳐진 제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45절:

저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행하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하였더라. 46 오래전 다윗 시대에 지금 우리는 역사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전통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들의 지휘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니라. 47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매일의 몫을 주되 그들이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구별하여 아론 자손들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축하 행사에는 음악이 포함되었고 축하 행사에는 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음악하는 자들과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3:26에는 레위인, 제사장, 문지기, 악사들의 조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은 다윗이 역대하 8장에서 우리와 솔로몬에게 남긴 모델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행한 모든 일은 과거를 본뜬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개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제, 추방, 조직, 안식일 준수, 죄로부터의 분리를 통한 개혁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선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배제를 통한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13장 처음 세 절.

1 그 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낭독하매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과 물로 그들을 대적하고 발람을 고용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백성이 율법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외국 출신을 구별하였느니라.

다시, 우리는 배제의 동기를 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은 배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다. 이 경우 그들은 야훼 숭배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의 배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통혼은 신명기 23장에 설명되어 있듯이 모세 시대 이래로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배제를 통한 개혁뿐만 아니라 추방을 통한 개혁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아십은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예비하였으니 그 방은 전에 그들이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곡식의 십일조를 두던 곳이었더라, 포도주와 기름은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준 것과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헌물이니라

이 일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의 첫 왕 아닥사스다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음이라 그리고 얼마 후에 나는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집 뜰에 방을 마련해 준 악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의 집안 가구를 모두 방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방을 청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 기구들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곳으로 가져왔느니라.

성막의 설계도를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당신에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곳에는 성직자들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준비했을까요? 엘리아십은 실제로 도비아를 위한 방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에 따르면 아마도 성전을 돌아 다니는 창고 중 하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따르면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을 담은 창고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십은 이 사람들의 친족이기 때문에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가 노숙자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깨끗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지도자가 때때로 해야 할 일, 즉 추방을 통한 개혁을 해야 했습니다.

배제를 통한 개혁이 있듯이, 추방을 통한 개혁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하면 조직을 통한 개혁도 있습니다.

10 또 내가 보니 레위 사람의 몫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밭으로 도망한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11** 그래서 나는 관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집이 버림받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12**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13** 그리고 나는 창고의 재무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직한 자로 여겨졌으므로 그들의 의무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직을 갖추고 몇 가지 사항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의 집이 버림받았는가? 느헤미야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성전의 합당한 기능을 등한히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질문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집은 폐허로 남아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패널 하우스에 거주할 때인가? 학개 1:4 학개에서는 질문이 성전의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 느헤미야에서는 제의적인 측면이 전면부에 부각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율법, 토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회복을 RESTORATION이라고 합니다. 토라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복구. 토라는 이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전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사람의 선행이 기록된 석판에 비유한 비유적 표현이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성전과 예배를 위해 행한 선한 일이 기록된 석판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우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통한 개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관행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안식일에 그것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팔았습니다.

나는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에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종 몇 사람을 성문에 묶어 두었습니다. 20 그 때에 상인들과 각종 물품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 머물더니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밖에 자느냐?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손을 얹겠다. 그 이후로 그들은 안식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22나에게도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의 크신 사랑에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보세요, 사람들은 상업을 통해 재건하려는 열심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사실 역대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신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선과 기타 물건을 가져오는 수문을 통과하는 교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는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을 말씀하시되

안식일은 두 가지 목적, 즉 휴식과 예배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식일에 늦잠을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요점을 놓쳤습니다.

글쎄, 당신은 요점의 절반을 놓쳤습니다. 휴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개혁을 해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리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혁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분리를 통한 개혁. 이번에도 국제결혼 문제가 등장합니다.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할 것이다. 아니, 아니. 이 텍스트는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설명적입니다.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에스라는 울었고, 울었고, 무릎을 꿇고 백성을 향해 울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스타일은 다른 것 같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맞서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느헤미야의 가혹한 묘사는 우리가 하느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에스라의 접근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율법의 문자 그대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26~27절에서 그는 역사의 교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 중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여자들이 그를 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겠느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역사에 나오는 예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역사에서.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그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교도 여성들과 결혼하는 행위는 사악하고 배신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자기 문화나 조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중 하나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나에게서 쫓아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긴밀히 협력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아십은 분명히 도비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4에 따르면. 그런데 엘리아십의 손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긴 엘리아십의 손자를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했습니다. 책은 어떻게 끝나나요? 책은 '나를 기억하라'는 기도로 다시 끝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네 번 나옵니다. 날 기억해. 그리고 마지막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더럽혔음이니이다 그래서 나는 외국의 모든 것에서 그들을 깨끗하게했습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직분과 직분을 정하였다. 그리고 나는 정해진 때에 나무 제물과 첫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직분을 모독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날 기억해. 그는 그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나를 기억하라고 하더군요. Fensham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평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법적 원칙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바울의 그분의 오심에 대한 해석으로 비로소 법적 부담이 인류의 어깨에서 제거되고 종교의 중심이 그분의 십자가상의 대리 고난에 놓이는 또 다른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문제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서술적이고, 어느 부분이 규범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우리 예배의 청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훌륭하지만 그것이 그 구절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가혹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의 목사는 어떤 죄가 있어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도들을 때릴 수도 없고 머리털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원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이라는 것과 신자의 믿음과 실천을 위한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참된 지도자, 곧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1회기, 느헤미야 11-13장입니다.